

광주·전남 대학 경쟁률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전남 평균 '1.88대 1' 17곳 중 최저...광주 2.39대 1 '16위' 전국 대학 3곳 중 1곳 정시 '사실상 미달'...대부분 지방대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정시모집 경쟁률이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88개 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경쟁률이 평균 1.88대 1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았고, 광주(2.39대 1)와 경남(2.84대 1)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지난해에도 경쟁률 1.92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광주 역시 2.56으로 두번째로 낮았다. 사실상 이들 대학은 추가모집에 나서는 등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시모집에서는 수험생 1명이 최대 3개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다. 학원가에서는 경쟁률이 3대 1이 되지 않는 대학들은 중복합격자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경쟁률이 3대 1 이하인 대학들은 중복합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감안할 경우 추가모집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광주·전남 국립대와 사립대를 대표하는 전남대와 조선대도 경쟁률이 각각 3.49대 1, 3.48대 1이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국적으로는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미달'을 기록한 대학이 3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 경쟁률이 4.67대 1로 지난해(4.61대 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경쟁률이 3대 1 이하인 대학은 59곳(31.4%)으로 지난해(66곳)에 비해 다소 줄었다.

올해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모집정원을 줄이고, 지역 고대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 숫자가 작년에 비해 줄었다고 종로학원은 설명했다. 이들 59개 대학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4곳, 경인권이 3곳, 비수도권이 52곳이었다. 비수도권 비율이 88.1%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경쟁률 3대 1 이하 대학 가운데 서울이 4개, 경인권 4개, 비수도권이 58개(87.9%)였다. 올해 정시모집 경쟁률을 권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서울지역 대학은 평균 경쟁률이 5.79대 1, 경인권은 5.96대 1이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3.57대 1에 불과했다. 이와 반대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6.32대 1)이었고, 경기(5.89대 1)와 서울(5.79대 1), 세종(5.70대 1) 순이었다. 정시 추가모집은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지역별 경쟁률

| 소재지 | 지역 | 학교수 | 모집 | 지원 | 경쟁률 |
|-----|----|-----|---------|---------|------|
| 1 | 인천 | 6 | 2,909 | 18,389 | 6.32 |
| 2 | 경기 | 33 | 14,709 | 86,608 | 5.89 |
| 3 | 서울 | 41 | 32,633 | 189,011 | 5.79 |
| 4 | 세종 | 2 | 1,321 | 7,535 | 5.70 |
| 5 | 대구 | 3 | 2,304 | 12,484 | 5.42 |
| 6 | 충남 | 15 | 6,527 | 28,052 | 4.30 |
| 7 | 제주 | 1 | 1,078 | 4,625 | 4.29 |
| 8 | 충북 | 10 | 4,540 | 18,937 | 4.17 |
| 9 | 대전 | 9 | 4,233 | 16,663 | 3.94 |
| 10 | 강원 | 10 | 4,270 | 16,136 | 3.78 |
| 11 | 울산 | 1 | 584 | 2,173 | 3.72 |
| 12 | 부산 | 14 | 7,745 | 26,517 | 3.42 |
| 13 | 전북 | 8 | 4,855 | 15,138 | 3.12 |
| 14 | 충북 | 11 | 5,266 | 16,323 | 3.10 |
| 15 | 경남 | 9 | 4,169 | 11,821 | 2.84 |
| 16 | 광주 | 8 | 3,971 | 9,506 | 2.39 |
| 17 | 전남 | 7 | 2,694 | 5,057 | 1.88 |
| 총합계 | | 188 | 103,808 | 484,975 | 4.67 |

<종로학원 제공>

전남 국제직업고 추진 도교육청, 해외 유학생 유치도

전남교육청이 전남국제직업고 신설을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직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운영 설명회를 연데 이어 지난 5일에는 2025년부터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로 결정한 직업계고등학교 교장·담당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해외 유학생 유치 방안과 해외 유학생 모집 전형,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생활지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 교육청은 오는 2025년 3월까지 기존 직업계고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2026년 3월에는 기존 학교를 전남국제직업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2028년 3월 전남국제직업고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심폐소생술 배우는 교사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친구 살해 고의성 없다...살인→상해치사

흥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한 30대 A가 혐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운)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혐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새벽 4시10분께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흥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 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씨의 장난을 치다 벌어진 우발적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 친밀한 관계였고 사건 직전 동석자도 다툼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A씨가 한차례 공격 후 직접 119 신고를 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인구 급증' 광주 동구 선교동 시내버스 '지원52번' 증차

13일 '지원52-1번' 신설
최근 인구가 급증한 광주 동구 선교동을 통과하는 '지원52번' 노선이 분할 및 증차된다. 광주시는 빠른편 오는 13일부터 시내버스 지원52-1번 노선을 신설 운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선교지구 교통 수요가 많아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버스 노선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잇달아 버스 노선을 증차하기로 했다. 최근 선교지구에는 광주선교지구1차우방아이유엘 아파트에 490세대가 입주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선교지구2차우방아이유엘리포레 아파트에 입주된 90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52번 노선은 배차간격 45-90분으로 1일 28회 운행하며, 내남-용연동-소태역-학동-그린파크 등 총 19km노선을 운행했다. 신설되는 지원 52-1번 노선은 기존 노선 중 용연동과 소태역 노선 사이 5.9km 구간만 운행한다. 대신 녹동 및 지원화훼단지 정류장에서는 정차하지 않는다. 52-1번 노선은 총 1대만 운행하며, 20-90분 간격으로 1일 32회(평일·토요일 기준) 운행할 계획

이다. 버스는 기존 동화운수 228번 노선 버스 10대 중 1대를 번호만 바꿔 운행한다. 228번 버스는 최근 차량 수리를 위해 1대를 감차했음에도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 감차된 채 유지되고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교동 버스 노선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있었으나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걸려 증차가 늦어졌다"며 "광주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없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보훈병원 중증 응급 의료기능 강화

2027년까지 응급실·수술실 확충
광주보훈병원의 중증 응급 의료기능이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9일 광주보훈병원 역량강화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국가보훈의료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보훈병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84억 원을 들여 응급실과 수술실을 확충하고, 응급실에 음압격리실과 심폐소생실을 추가 설치하며 심혈관센터도 새로 구축한다. 국가유공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위탁병원에 기존 전국 702곳에서 916곳으로 확대한다. 현재 위탁병원은 광주 9곳, 전남 68곳이 있으며 1월 중으로 의료 수요조사 거쳐 신규 위탁병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보훈부는 보훈 대상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

보통인 자원 통합·공유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간호간 병동합서비스 병동을 현재 30%에서 40%로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정에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께 국가의 당연한 예우이자 의무로서 고품질의 보훈의료서비스로 보답하겠다"며 "국가유공자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수 목 장

삶 의 마지막 ,
한 그루 나무 가 될
당 신 을 기 억 합 니 다 .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